

# 속담 속에 담긴 문화정서의 탐구

《한국 전통사회의 정신문화 구조양상》 펴낸 정종화 교수

영문학자로서 전공 이외의 분야인 속담을 10여년간 연구해온 정종화 교수(61, 고려대 영어영문학과)가 한국과 영미의 속담을 비교문화론적 시각에서 분석, 우리 민중의 심리구조와 가치관을 서술한 《한국 전통사회의 정신문화 구조양상》(고려대 출판부)을 펴냈다.

“속담이라는 기호체계가 사회와 문화의 의미구조를 내포하고, 한때는 생활의 안내자로, 대화와 문체의 기본구조로 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나 국민들에 의해 등한시되고 하나의 학문적 총체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재료를 모아둔 정도의 속담사전만 몇권 존재할 뿐 의미를 활용하거나 분석해놓은 연구서가 전무한 현실이 비전문인인 제가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 민중의 세대철학 담겨 있어

영문과 교수와 국제어학원 원장을 겸임하는 가운데 18년간 영미문화연구소 소장을 지내면서 수많은 영어속담을 연구한 정교수는 이미 500여개 속담을 수록한 《한영속담사전》(탐구당)을 펴낸 바 있다. 이번에 출간된 이 책에는 총 1100여 개의 한국속담과 500여 개의 영미속담이 수록돼 있으며, 한국과 영미 속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세계관, 사회구조, 남녀관계 등의 틀 속에서 분석기술한 점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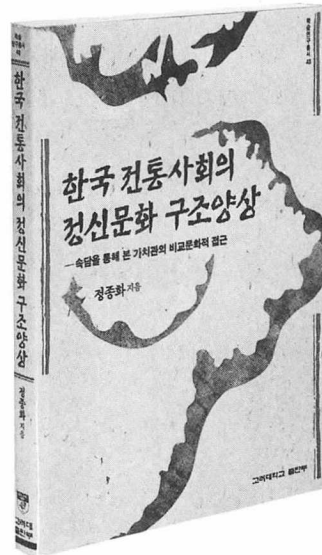
“속담은 속된 사람들의 속된 말입니다. 하층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상스럽게 표현하

는 것이 우리 속담의 주축을 이루었던 거죠. 그것은 양반문화가 아닌 가난한 민초들의 목소리, 학문적·예술적 계보가 결여된 자연발생적인 하층사회의 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속담은 민중의 어려운 생활과 약삭빠라야 살아남는 세대철학을 반영하는 중요자료이자 전통사회의 문화를 투시하는 창구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교수는 전통사회라 지칭할 때 그 기준을 정하기가 불분명한 이유로, 서구 속담이 주로 철학자, 성직자, 대문호들의 인생철학을 반영해 위에서 아래로 전파된 반면, 한국 속담은 민중의 예지가 구전된 관계로 그 출전과 연대를 거의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든다.

정교수는 또한 수세기 동안 서구 속담이 학자나 성직자에 의해 편찬수집되고 민중과 지배층의 공유물이 될 수 있었던 반면에 우리의 속담은 지배층의 참여를 등진 부분적 문화와 정서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 속담엔 ‘중년 간통은 누운 소타기’ ‘여원 강아지 똥 탐한다’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등의 상스러운 표현과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많다고 말한다.

“민중문화의 가치관과 토속문화의 정서를 대변한 우리 속담의 구체적 모습들은 학문을 통한 실용적 출세를 꿈꾸는 인생관으로, 체념적 패배주의나 방어적 무사안일주의로, 또는 체면 콤플렉스의 부정적 형태로도 나타났지만, 이런 소극적 측면보다는 속



정종화 교수.

담 속에 담긴, 절망을 거부하는 생명력과 낙천성, 그리고 어느 특정한 종교의 영향에서 배제되어 현세의 삶을 수용하려는 건강성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서구와 우리 사고방식의 차이

정교수는 속담을 통해 본 서구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사회생활과 문화의 차이, 그리고 이미지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보다 깊이있게 속담의 상징성과 각 문화의 발상법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속담은 분명 문화의 한 현상으로, 학문 분야에 있어서도 민속학과 인류학, 국문학 등에서 더욱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속담을 다시 활성화하자고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속담은 현실에서 보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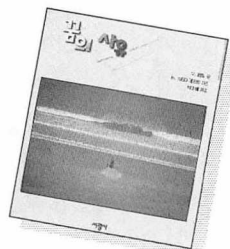
을 유추해낸 상징적 진리로서 역사적 기록물이 전달하는 직설적 서술양식보다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외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돌아보고 한국문화의 원류를 비교연구하는, 누군가 해야 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문학의 번역에도 활발한 작업을 해온 정교수는 이미 이문열의 《시인》을 비롯, 한국고전문학·시조문학·중단편문학 등의 분야에서 8권의 영역본을 출간한 바 있으며 《한국속담사전》 영역본도 곧 출간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의 교육제도에 관한 책을 쓰면서 개인의 가능성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연구중인 그의 관심은 사람과 사람의 문화, 그리고 각 문화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정민 기자

##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시리즈는 포토 에세이, 잠언, 명상 만화 등 거창하지 않으면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접하기 쉬운 형태의 철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방법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해 서광사에서 새롭게 마련한 기획입니다.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1  
품의 사유  
M. 비켈 글 · H. 슈타이게르트 사진  
박미애 옮김  
● 16×18cm/컬러/양장/각권 4,000원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2  
하늘이 머무는 먼 곳에  
B. 보트 엠크 · R. 쉐네몬트, H. 퀴르니히 사진  
박미애 옮김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3  
나는 놀라워한다  
올리히 사퍼 글 · 사진  
조정옥 옮김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